

## 이야기 논어

손정수 엮음

태서출판사 / A5신 / 416면 / 3000원

동양의 고전인 「사서삼경」의 하나로 공자의 가르침을 담은 「논어」를 어린이들이 이해하기 쉽게 새로 엮은 책.

본래 학이, 위정, 팔일 등 20편으로 짜여져 있지만 어린이들에게 유용한 15편만을 골라 효도와 공경, 충성과 용서를 바탕으로 어질고 슬기롭게 살아가는 귀한 말들을 담았다.

한자로 씌어진 원문을 그대로 싣고 음과 토를 담아 해석과 함께 속뜻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재미있는 이야기와 '좋은 글 한 구절' 등 교양을 넓히는 글도 수록하여 재미있게 볼 수 있도록 엮었다.

## 신기한 과학퀴즈

홍구암 지음

대일출판사 / A5신 / 252면 / 3000원

생활주변에서 볼 수 있는 현상들에 대한 과학적 의문과 난해한 과학지식을 퀴즈로 풀어 흥미있게 학습하도록 엮은 책.

'북극의 빙산은 무엇에 의해서 생긴 것일까' '터널의 전기불은 왜 오렌지 색일까' '별들은 어느쪽 방향으로 돌고 있을까' '월승기와 유인원은 똑같은 종류의 동물일까' 등 154개항의 질문들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해답과 함께 현상의 원인과 이치를 터득하도록 상세한 해설을 담고 있다.

## 꼬맹이들의 첫사랑

김문홍 외 지음

대교출판 / A5신 / 220면 / 2500원

요즘 어린이들의 사랑이야기와 아동문학가 선생님들이 어린날에 겪었던 사랑이야기 15편을 한데 모은 책.

심장병을 앓는 유나에게 용기를 북돋워주는 상구, 애태우며 좋아하던 수현이가 알고보니 이모의 딸이라서 좋은 친구로 지내려는 승조, 민수 마음 속에 별로 떠오른 보영이, 크리스마스 카드와 함께 서로 관심을 갖기 시작한 중애와 화수...

안타까움·슬픔·기쁨 따위를 느끼며 때문지 않은 맑은 마음으로 참사랑을 배워가는 어린이들의 세계를 볼 수 있다.

## 얼룩염소의 모험

박화목 지음

아이큐박스 / A5신 / 240면 / 2800원

얼룩염소를 주인공으로 우리들 삶의 이모저모를 그리고 있는 동화.

화가아저씨의 사랑속에서 염소가족은 편안하게 살고 있었는데 못된 도시장사꾼이 느닷없이 나타나 새끼흑염소를 훔쳐갔다. 어미염소는 새끼염소를 찾아 집을 나서게 된다. 어미염소가 집으로 되돌아오기까지 만난 세상은 다양하다. 병을 앓고 있는 소년의 꿈, 사냥꾼에게 쫓기는 다람쥐, 돈에 눈이 멀건 어른들, 자신을 잘 돌봐준 착한 남매들...

우리 삶의 좋은 점과 나쁜 점을 함께 보면서 어린이들이 바람직한 삶은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 하는 동화이다.



## 꼬마탐정 Q작전

이영준 지음

거울출판사 / A5신 / 224면 / 2500원

아리송은 여름방학 때 시골 이모집에 놀러갔다. '땅콩'이라는 남자아이와 '까치'라는 여자아이와 금방 친구가 되어 재미있는 일을 찾아나선다. 평소 추리소설을 좋아하는 아리송에겐 딱배아저씨의 행동 하나하나가 수상하게 여겨진다.

열쇠구멍미를 잔뜩 지니고 있는 점이라든지, 산속 동굴을 잘 알고 있는 점, 한가지 일을 못하고 정신이 산만한 점, 철물점에서 회중전등을 산 점 등. 아리송은 딱배아저씨의 행동을 세밀히 관찰하면서 기록으로 남긴다. 드디어 한밤중에 딱배아저씨가 물건을 훔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는데...

## 아빠가 아주아주 어렸을 적에

윤형복 지음

성하 / A5신 / 142면 / 2700원

"아빠가 어렸을 적에, 아빠가 국민학생이었을 때 개구장이·골목대장 시절을 회상하며 오늘도 눈을 감고 그 날들에 빠져든다. 아들이, 아빠의 옛날이야기를 들어보려구나. 아빠는 이렇게 자랐단다."

'아빠와 함께 읽는 동화'라는 부제가 붙은 이 동화는 개구장이면서도 효성스럽고 밝은 어린 시절 아빠의 고향이야기이다.

역사시간에 선생님이 들려준 일본장군이야기에 화가나 선생님을 골탕먹인 사건, 좋아하는 여자친구한테 장난친 이야기 등 요즘 도시생활을 하는 어린이들이 겪을 수 없는 훈훈한 농촌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 별

알폰스 도데 지음 / 손경애 옮김

대원사 / A5신 / 240면 / 2500원

프랑스 프로방스지방의 한 목동의 사랑이야기. "뤼브롱산에서 늘 양떼를돌보는 목동이 있었습니다. 보름마다 목동이 먹을 음식을 노마도 아주머니가 마을에서 날라오지요. 그때마다 목동은 주인집 딸 스테파네뜨아가씨의 안부를 묻곤 합니다. 마음속으로 좋아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일요일 아가씨가 직접 음식을 가져왔어요. 마침 비가 내려 돌아가려던 아가씨는 산에서 밤을 세우게 됐답니다. 목동의 별이야기를 들으면서 아가씨는 잠이 듭니다."

아가씨를 사랑하는 목동의 맑은 마음이 잔잔하게 그려져 있고 작가의 또다른 단편소설도 담겨 있다.

## 어린이 한국사

신상훈 엮음

예림출판사 / A5신 / 226면 / 2000원

개정된 교과서에 맞춰 그 내용을 풀이하는 형식으로 쓴 우리나라 역사책.

단군이 나라를 세우면서부터 조상들은 어떻게 이 나라를 지키고 이끌어 왔는지 설명하고 있다.

김유신·세종대왕·황희정승·최승로 등 훌륭한 지도자들의 업적, 외침으로 나라가 위태로울 때 용감하게 싸운 조상들의 이야기는 어린이들에게 용기를 불돋아 줄 것이다. 담쟁이나 왕인처럼 우리문화를 외국에 전파한 이들의 이야기와 조선 후기 서구의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이해하기 쉬운 말로 적혀 있다.